

# 株式會社, 住食會社, 主植會社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 윤운수(Fila 코리아 회장), 이해익 공동칼럼

기업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기업 형태인 주식회사(株式會社)란 과연 무엇인가? 소유 측면에서는 과연 누구의 소유인가? 새삼스러운 질문이다.

철이 철이니 만큼 노사(勞使)가, 노사정(勞使政)이 지지고 볶는 논쟁 속에 있다.

기업이라는 배를 침몰로부터 방지하여 노를 저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논쟁을 해야 한다. 외국의 돈이 들락거리면서 여러 금융지표들이 춤을 추곤 한다. 그래서인지 새파란 젊은 펀드 매니저들이 연예인 스타 뺨치는 고소득과 매스컴의 각광을 받았었다.

한 톨을 아껴서 기업의 이익을 내려고 경영자와 근로자들이 끊임없이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 경영현장이다. 이에 반하여 손짓 한번, 순간적인 판단 한번에 몇백억원, 몇천억원의 거래가 단 10분에도 수차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그 수수료 수입만 해도 중견 중소기업이 1년간 피나는 노력을 다 해야 이룰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

뿐이라, 맘만 먹으면 순식간에 엉뚱한 사람이 대주주가 되어 경영권 인수를 요청할 수도 있다. 또 이즈음 외국의 자본에 의해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양극단 사이에서 과연 기업, 주식회사란 무엇인가 새삼 고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원론에 입각하면 주식회사란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 조직이며, 주주(株主)가 그 기업의 주인이다. 의당 이윤 배당을 받는 권리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경영자를 선임하고 경영을 위임할 이사회의 구성권은 전적으로 주주에게 있다. 또한 그 주식회사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즉, 먹고살아야 하는 생업의 장이다. 그 뿐이라. 그 기업에 돈을 꾸어준 채권자는 이자를 받아 자산을 증식시킴과 동시에 먹고살아야 한다. 또 국가와 사회에 기업은 창출한 이익의 일부를 세금의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도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거래

처인 협력회사들과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소비자 고객들은 그 기업이 제공한 재화를 사용, 가공하여 소정의 소비와 재생산을 통해 만족스러워야 한다. 즉 먹고사는데 만족스러워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주식회사(株式會社)는 주식회사(住食會社)다. 즉 주주(株主)가 출자하고 주주가 주인인 주식회사(株式會社)라기 보다는 관계 구성인과 거래처 그리고 사회가 함께 먹고살아야 하는 주식회사(住食會社)인 셈이다. 그렇다면 단순한 주주의 소유물일 수 없다. 주주는 물론 관계구성인과 각 사회주체가 직간접으로 먹고사는 문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는 물론이려니와 글로벌화 시대에 돌입한 작금, 국제사회의 존립 방식과 목적에 부합해야 그 회사는 존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 기업을 구성하고 관계하는 각각의 경제주체 사회주체들은 형태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기업의 직간접의 주인(主人), 주체(主体)들인 셈이다. 그리고 그 주체, 주인들이 각각 먹고사는 만족은 물론, 공동으로 주체적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성장, 번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각 주체, 주인들이 나무처럼 잘 심겨지고, 잘 자라는데 기업은 기여해야한다. 그렇다면 이를 주식회사(主植會社)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요컨대 기업의 이윤은 모든 관계 경제주체들의 조화로운 만족 위에서 형성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이윤은 목표가 아니라 기업 경영활동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경제 주체가 서로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뇌하고, 서로의 존재목표를 이해할 때 비로소 경제 가치는 극대화 될 것이란 점을. 그러자니 투명하게 기업의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